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진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 주 권**

논문 초록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GVC는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며,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GVC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GVC와 한국 중소기업의 연관 관계를 새로운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세계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핵심 주제어: 글로벌 가치사슬,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9, F23

투고 일자: 2016. 12. 30. 심사 및 수정 일자: 2017. 1. 16. 게재 확정 일자: 2017. 1. 20.

* 이 논문은 KIEP 연구자료 16-01을 축약한다.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mail: zkkim@konkuk.ac.kr

I. 서론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활동이 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GVC는 국가와 기업들의 글로벌화 확대,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신흥국 및 신흥국 글로벌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지역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의한 다국적기업들의 전략 변화 등에 의해 더욱 세분화되고 지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운송기술의 발달, 관세장벽의 축소 등의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생산 및 기타 경제 활동의 조정비용(Coordinations costs)을 감소시켜 글로벌화를 더욱 가속화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GVC에 참여를 통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력의 증가 그리고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GVC에 참여는 중소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사슬에서 전후방 파트너들과의 연계된 협업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방식과 첨단 기술과 같은 선진 지식의 습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자원과 경험이라는 태생적인 열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자체의 독립적인 글로벌화 전략 보다 GVC의 참여를 통한 글로벌화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이준호·김종일, 2007).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관리 능력, 풍부한 재무 자원, 국제표준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며, 보다 많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다는 위협 요소들도 존재한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가 많은 기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중소기업들 역시 정부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OECD, 2007; UNCTAD, 2010).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GVC와 한국 중소기업들과의 연관 관계를 새롭게 가능해진 부가가치 기준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와 산업별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한국 중소기업들

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에 차별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경쟁력을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 지수들로 도식화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 Output Data, WIOD)를 사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수준이었다.

둘째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이란 생산지 위치에 따라 이분화 하였으며,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생산 경쟁력과 해외 생산 경쟁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국내 부가가치 생산과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도출하였다.

II.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과 한국 중소기업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GVC에 참여하는 유형을 7가지¹⁾로 세분화하였다(이준호 외, 201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 또는 참여 경쟁력을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2가지 유형으로 대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 또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즉,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의 생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GVC 참여를 나타낸다. 세계산업연관표(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이 없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의 데이터만 제공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총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산출하기 위해 OECD의 세계 총 부가가치 수출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계

1) 1. 해외 소재 글로벌 대기업으로의 편입 2.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으로 편입 3. 국내 대기업으로 편입 4.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GVC 편입 5.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6. 대기업의 중소기업 GVC 편입 지원 프로그램 활용 7. 중개 및 대행기구 등을 통한 GVC 편입 (이준호, 2007; 고희채, 2015)

산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들의 GVC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은 해외에서의 생산으로 국내 다국적기업들 또는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GVC에 참여하는 유형이며, 해외 생산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에서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 세계 OFDI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생산 경쟁력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산출하였다.

1.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현황

〈표 1〉과 〈그림 1〉에 의하면, 1980년 한국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량은 11조 8천억 원이며, 중소기업이 35.2%인 4조 1천억과 대기업이 7조 6천억 원을 차지하였다. 총부가가치 생산량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3년 50.3%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이후 하락과 상승세를 유지하며 2003년에는 역대 최고의 52.8%인 134조 2천억 원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 비율이 대기업 대비 감소하였고, 2013년 미약한 반등과 함께 49.5%인 248조 1천억 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35.2%에서 49.5%로 14.3%p 증가하였고, 국내 대기업들의 비중은 반대로 64.8%에서 50.5%로 14.3%p 감소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와 대기업의 비중 축소 현상은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급격하게 발생하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글로벌화 시대에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 보다 상대적으

〈표 1〉 한국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국내 부가가치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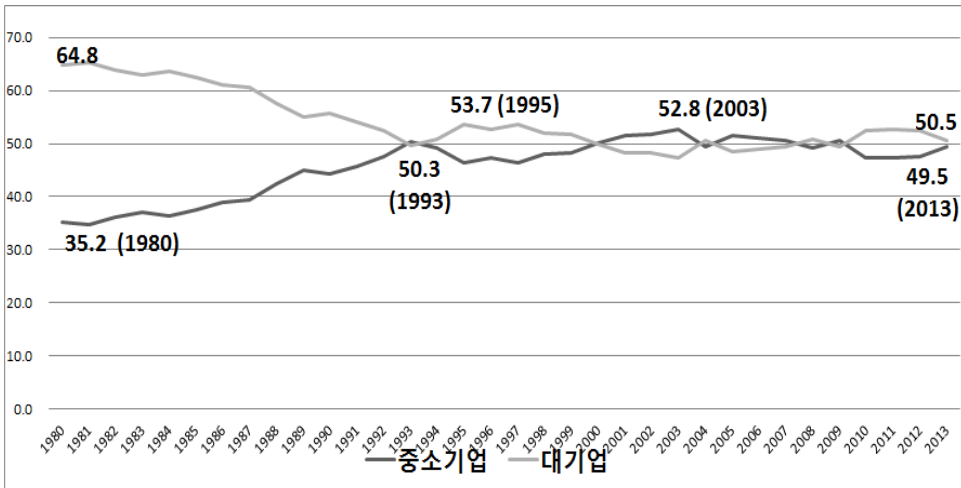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1980	1980-1989	1990	1990-1999	2000	2000-2009	2010	2013
전 체	118,566	293,629	709,245	1,383,855	2,194,246	2,991,403	4,547,758	5,013,491
중소기업	41,683	116,640	314,318	657,210	1,101,508	1,518,323	2,157,359	2,481,834
대기업	76,883	176,989	394,927	726,645	1,092,738	1,473,080	2,390,399	2,531,657
중소기업 (%)	35.2	38.3	44.3	47.3	50.2	50.9	47.4	49.5
대기업 (%)	64.8	61.7	55.7	52.7	49.8	49.1	52.6	50.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그림 1〉 한국 중소기업 &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 비율

(단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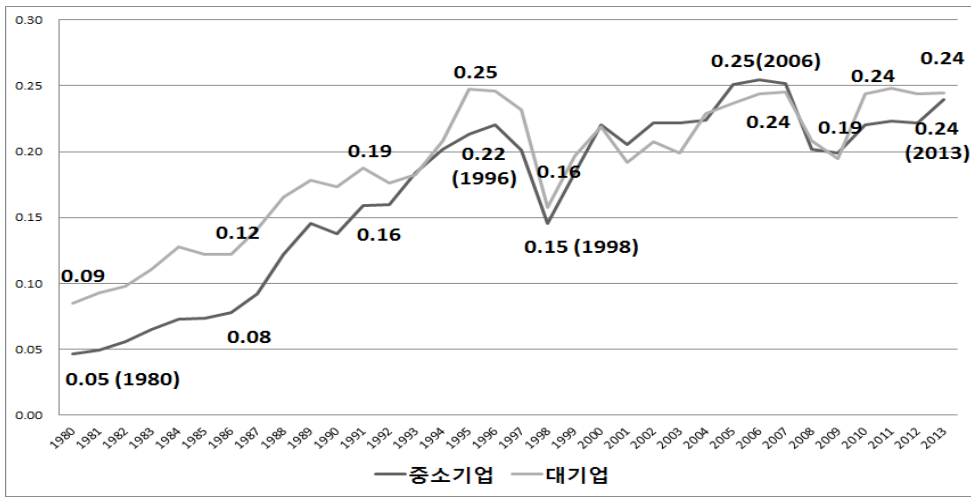
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서 발생된 변화로 예측된다.

2.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의 세계 GDP 공헌도

〈그림 2〉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제조업 총부가가치 생산량,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중소 제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량은 1980년 전 세계 GDP에 0.05%를 차지하였고,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96년 0.2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그 비중이 0.15%까지 급감한 후에 지속적인 회복세로 2006년 역대 최고의 0.25%를 기록하였다. 그 후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 2013년 0.24%를 기록하였다. 이는 1980년 0.05% 대비 380%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980년부터 전체적으로 한국 중소 제조업들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전 세계 GDP에 공헌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즉, 한국 중소 제조업체들이 GVC에 참가할 수 있는 경쟁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국 대기업의 제조업 국내 총부가가치 생산은 중소기업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였으나, 전 세계 GDP에 공헌도는 1980년

0.09%에서 2013년 0.24%로 167%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 역시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 확대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 한국 중소기업 & 대기업 국내 부가가치가 세계 GDP 공헌 비율²⁾
(제조업 부문)



자료: World Bank & 중소기업중앙회.

3.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국내 생산 현시비교우위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생산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OECD의 세계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자료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관련통계의 자료를 통합하여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도출하였다. OECD가 제공하는 부가가치 수출 데이터는 대/중소기업의 구분이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부가가치 수출량을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2002년 한국 중소기업들의 총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량은 12조 5,762억 원에서 2013년 248조 1,834억 원으로 99%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총 제조업에서 12.4%인 15조 4,51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1.7%인 14조 5,807

2) 중소기업 공헌 비율=(한국GDP/세계GDP)×(중소기업 부가가치 생산량/한국 총부가가치 생산량).

〈표 2〉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국내 부가가치 생산 (2002-2013)

(단위: 억원)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제조업	1,245,762	1,342,563	1,482,899	1,599,924	1,659,417	1,746,956	1,704,029	1,782,036	1,951,097	2,138,394	2,392,607	2,481,834
식료품, 음료, 담배	129,392	134,450	141,186	145,997	144,905	158,321	155,283	173,763	179,313	185,698	215,351	233,173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45,807	144,999	141,436	139,538	134,897	135,568	114,313	122,531	128,457	144,084	170,147	173,406
목재 및 나무 제품	11,257	11,489	13,916	14,099	14,389	15,565	12,102	12,781	13,004	14,275	18,932	18,64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81,912	85,473	84,487	87,885	89,546	67,552	57,109	64,347	71,457	71,861	87,094	88,679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3,928	3,895	4,159	5,140	5,389	4,066	4,919	7,143	10,487	12,557	11,656	11,701
화학물 및 화학제품	154,517	165,514	176,119	189,915	180,237	153,933	167,561	174,318	191,377	192,614	204,891	216,37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77,170	83,847	96,085	106,675	110,581	116,187	108,535	114,194	130,218	134,898	163,511	173,316
비금속광물 제품	65,855	75,032	76,858	76,648	77,872	81,345	81,329	82,410	85,474	83,458	101,539	113,526
제1차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143,110	163,474	212,718	248,969	262,770	284,317	290,202	280,637	311,837	352,628	380,396	384,223
기타 기계 및 장비	134,860	152,397	176,873	190,759	207,963	209,806	205,814	202,504	239,271	262,184	301,469	303,49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13,461	123,584	140,423	152,297	157,165	167,020	164,916	194,267	186,684	227,106	233,976	249,72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62,990	66,760	71,989	79,049	85,157	144,942	140,198	153,472	166,262	181,376	194,718	201,723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85,565	93,489	103,732	115,905	141,911	163,023	165,811	163,118	198,267	233,598	256,344	260,122
기타 제조업	35,937	38,159	42,917	47,047	46,634	45,312	35,937	36,551	38,989	42,057	52,584	53,730

자료: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청).

억 원 그리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이 11.5%인 14조 3,110억 원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비중은 2013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3년에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국내 부가가치를 생산한 산업은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으로 15.5%인 38조 4,223억 원을 생산하였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이 12.2%인 30조 3,491억 원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이 10.5%인 26조 122억 원을 생산하였다.

2002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2002년에 부가가치 생산량이 0.5%인 6조 2,990억 원의 생산이 2013년엔 0.8%인 20조 1,723억 원으로 220%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도 26조 122억 원 그리고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도 1조 1,701억 원으로 2012년에 2002년도 대비 각각 204%와 198% 증가하였다.

〈표 3〉는 세계 부가가치 수출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수출액을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가치 즉, 국내 생산의 경쟁력을 도출하였다. 도출하는 과정은 첫째, OECD의 부가가치 수출과 중소기업청 자료의 산업 분류를 ISIC Rev.3에 일치시켜 기타 제조업 포함 14개 산업과 5개년도(2005, 2008-2011)으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 자료에 기반으로 산업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을 계산하여, OECD의 한국 부가가치 수출액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OECD의 세계 부가가치 수출액과 대·중소기업으로 구분된 OECD 한국 부가가치 수출액을 사용하여 현시비교우위 지수³⁾를 계산하였다.

2005년 한국 중소기업의 14개 산업 중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지수 1.42로 국내 생산에 가장 큰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에서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1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현

3) 현시비교우위 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은 특정 경제 주체의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또는 일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낸 수.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존재함. 한국 대·중소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은 OECD의 한국 부가가치 수출을 중소기업청의 한국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비율에 따라 산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산업별 격차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RCA_i = \frac{X_j^i / X_w^i}{X_j / X_w}$$
, 여기서 i = 산업, j = 특정국가그룹(한국 중소기업), w = 전 세계, X = 부가가치 수출

시비교우위 지수 1.61로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냈다.

〈표 3〉 한국 중소기업의 국내 생산 현시비교우위 지수(2005, 2008-2011)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료품, 음료, 담배	0.33	0.32	0.36	0.38	0.40
섬유제품, 의복, 포피, 가죽, 가방, 신발	0.72	0.62	0.61	0.61	0.63
목재 및 나무 제품	0.04	0.03	0.04	0.04	0.0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68	0.76	0.69	0.72	0.7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9	0.09	0.13	0.20	0.22
화합물 및 화학제품	1.42	1.49	1.49	1.35	1.0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3	1.10	1.22	1.30	1.22
비금속광물 제품	0.49	0.40	0.32	0.37	0.38
제1차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0.89	0.91	1.20	1.10	1.20
기타 기계 및 장비	1.03	1.17	1.20	1.26	1.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0.93	1.38	1.39	1.35	1.6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77	0.85	0.98	0.89	1.00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02	1.06	0.95	1.09	1.20
기타 제조업	0.45	0.35	0.32	0.12	0.12

자료: OECD & 중소기업관련통계(중소기업청).

주: 현시비교우위 = (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세계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 (한국 중소기업 총 부가가치 생산 / 세계 총 부가가치 생산), 한국 중소기업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 OECD 한국 부가가치 * (중소기업 부가가치 / 총 부가가치).

한국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국내 생산의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산출 비교된 총 5년 동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그리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지켜왔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가 2008년부터 비교우위가 발생하고 2011년에는 비교우위가 가장 많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은 2008년까지 비교우위가 없다가 2009년부터 비교우위 산업으로 대두 되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에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구분되었다.

그 외의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비금속광물 제품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에서 연구 기간 동안 한국 중소기업들이 현시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과 〈그림 3〉은 한국 전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한국 대·중소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와 비중을 나타낸다. 1980년도 한국 기업들은 1억 4,520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하였고, 중소기업이 30%인 4,360만 달러 그리고 대기업이 62.6%인 9,09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총 2,541억 5,01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18.0%인 457억 2,880만 달러 그리고 대기업은 79.5%를 차지하며 2,021억 5,96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 한국 총 해외직접투자의 22.9%를 차지하는 3,200만 달러에서 1996년 그 비중이 역대 최고인 53.7%까지 증가했고, 2013년에 36.1%를 차지하며 918억 7,3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4〉 한국 총 해외직접투자 및 제조업 해외직접투자(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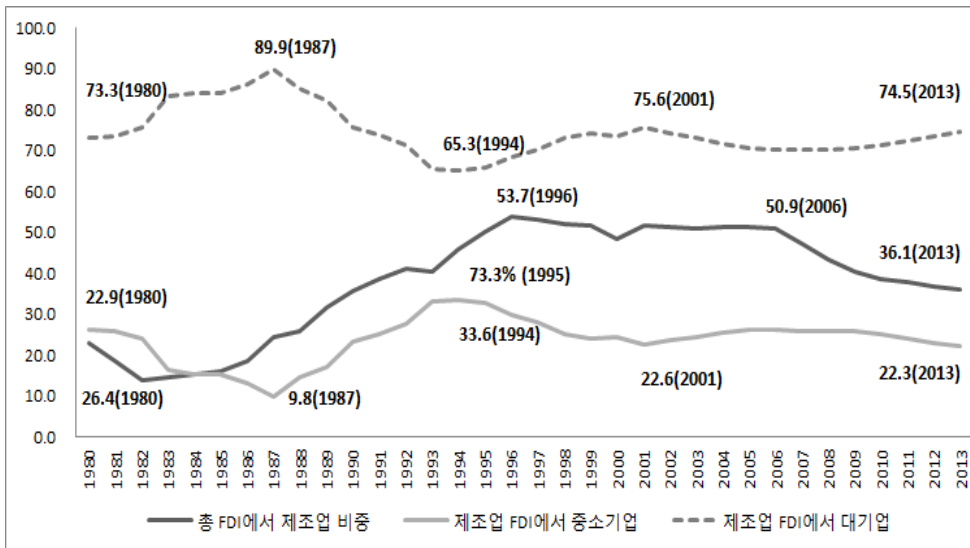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총 해외직접투자	총	145.2	3,247.4	34,908.5	166,877.1	195,879.8	224,306.4	254,150.1
	중소기업	43.6	426.0	8,435.9	37,594.6	40,590.0	43,187.3	45,728.8
	대기업	90.9	2,810.7	26,446.0	127,715.9	152,744.8	177,495.4	202,159.6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총	33.2	1,161.6	16,951.5	64,542.4	74,221.5	82,637.3	91,873.2
	중소기업	8.8	271.8	4,147.8	16,261.0	17,807.0	19,046.5	20,450.2
	대기업	24.4	879.3	12,496.9	46,019.6	53,909.0	60,819.0	68,468.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	총*	22.9	35.8	48.6	38.7	37.9	36.8	36.1
	중소기업**	26.4	23.4	24.5	25.2	24.0	23.0	22.3
	대기업***	73.3	75.7	73.7	71.3	72.6	73.6	74.5

주: * 총 FDI에서 제조업 비중, **: 제조업 FDI에서 중소기업, ***: 제조업 FDI에서 대기업자료: 수출입은행.

〈그림 3〉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비중(Stocks)

(단위: %)



자료: 수출입은행.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1980년 26.4%인 880만 달러로 시작하였다. 그 비중은 1996년까지 점차 상승하여 53.7%인 28억 2,150만 달러까지 기록하였고, 그 이후 점차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어 2013년에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 22.3%인 204억 5,0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장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은 부가가치 생산 비중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표 1〉, 〈그림 1〉 참조). 2013년도 제조업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의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비중에 약 30% 수준에 미치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생산 또는 경영 경쟁력이 대기업들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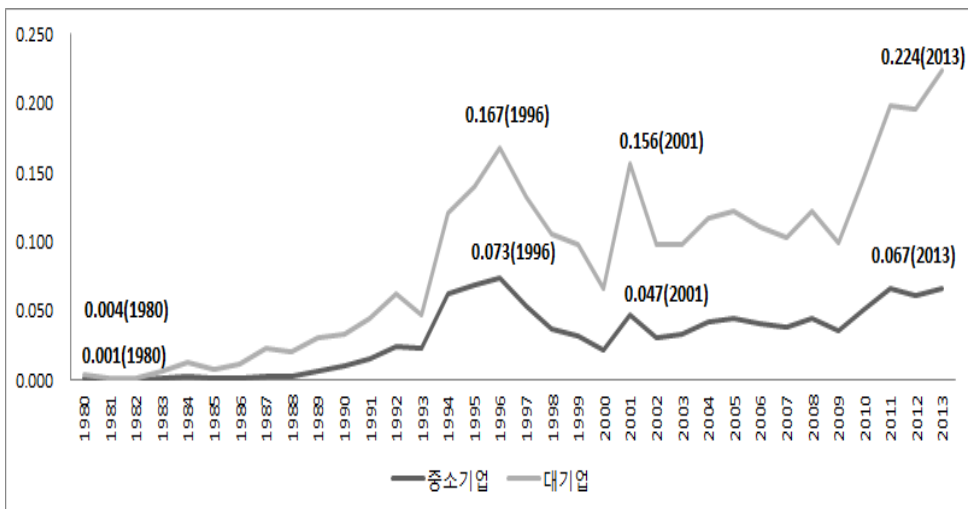
5. 한국 중소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 OFDI 공헌도

〈그림 4〉는 한국 중소 제조업과 대기업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0.004%로 시작되어 1996년 0.167%까지 급증하였다가 1997년 동남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다. 그 이후 대기업들의 제조업 해외직접

투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2013년 0.224%를 기록하였고, 이 비중은 <그림 2>에서 보여준 한국 대기업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세계 총 GDP에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그림 2>의 중소기업 부가가치 생산량의 세계 GDP 공헌 비율과 비교하면,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1980년에 부가가치 생산량의 세계 GDP 공헌 비율은 0.05에 비해 한국 중소 제조업 기업들이 세계 OFDI에 차지하는 비율은 0.001%이며, 이는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상승하여 2013년에는 세계 해외직접투자에 0.067%를 차지하였다. 2013년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대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면에서는 대기업들의 30% 수준에 미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상대적 열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한국 중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세계 OFDI(Stocks)에 대한 공헌 비율⁴⁾



자료: UNCTAD & 한국수출입은행.

6.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 생산 현시비교우위

<표 5>은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액으로 2002년에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 17억 6,947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소 제조업 기업

4) 중소기업 공헌 비율=(한국FDI/세계FDI)×(중소기업 FDI/한국 FDI).

〈표 5〉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Stocks)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식품, 음료, 담배	151.89	176.94	211.80	254.43	292.99	351.59	380.99	401.92	429.52	458.70	508.0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769.47	1,907.62	2,076.65	2,281.13	2,518.57	2,728.48	2,931.46	3,054.52	3,218.82	3,474.74	3,651.15
목재 및 나무 제품	65.29	70.17	79.23	85.44	94.43	104.96	111.11	115.32	200.87	268.39	272.2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81.69	95.82	123.49	133.64	147.92	171.69	189.81	201.96	231.43	253.62	264.31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7.53	7.87	14.32	14.40	61.68	85.40	107.16	117.57	120.63	121.21	122.34
화학물 및 화학제품	389.21	446.61	523.31	604.30	707.38	960.52	1,091.49	1,137.58	1,221.40	1,283.75	1,327.3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75.53	93.16	129.61	163.12	211.61	300.76	360.74	385.77	416.77	456.18	505.96
비금속광물 제품	147.14	157.28	177.04	206.49	236.18	263.64	297.60	356.99	376.86	398.57	428.96
제1차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392.11	493.85	604.51	704.76	838.09	1,083.35	1,292.54	1,421.75	1,546.66	1,676.25	1,758.10
기타 기계 및 장비	167.24	225.92	302.92	381.62	468.32	628.61	768.44	849.39	951.33	1,065.79	1,189.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1,019.22	1,199.06	1,532.93	1,824.85	2,177.04	2,583.31	2,945.97	3,202.22	3,501.59	3,775.99	4,032.8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46.79	169.23	192.46	240.35	303.85	359.71	409.73	450.48	522.58	601.95	659.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341.71	404.52	510.86	682.34	884.17	1,183.31	1,505.25	1,693.65	1,920.88	2,224.20	2,425.89
기타 제조업	600.29	688.38	801.67	901.96	1,030.27	1,165.64	1,324.17	1,458.22	1,601.63	1,747.69	1,901.2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들의 총 투자의 33%를 차지하였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에 10억 1,992만 달러를 투자해 1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의 투자액이 40억 3,285만 달러로 중소기업들의 총 투자의 21.2%를 차지하였고,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9.2%를 차지하는 36억 5,115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2002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볼 때, 절대적인 투자액은 작지만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2002년에 중소기업들의 총 투자의 0.1%를 차지하는 753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0.6%인 1억 2,234만 달러로 1,524.7% 증가하였다. 또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산업의 투자액도 2002년 대비 2012년에 600% 이상 증가하였다.

〈표 6〉는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의 산업별 해외생산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UNCTAD의 세계 산업별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자료와 수출입은행의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OFDI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계산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에 따른 경쟁력을 산업별로 측정하였다.

〈표 6〉 한국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부문별 현시비교우위 지수(2005, 2008-2011)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식품, 음료, 담배	0.62	0.48	0.70	0.53	0.4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12.28	17.88	26.21	26.19	21.99
목재 및 나무 제품	0.74	0.73	1.22	1.58	1.5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6.22	1.26	1.68	1.10	1.57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29	2.13	3.24	1.35	1.06
화합물 및 화학제품	0.78	0.75	1.19	0.85	0.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31	3.97	5.97	4.01	3.11
비금속광물 제품	4.16	3.18	5.34	3.62	2.92
제1차금속산업/금속가공 제품	1.92	2.11	4.00	2.03	1.69
기타 기계 및 장비	2.54	2.34	3.61	2.68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5.33	5.23	8.61	5.85	4.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44	3.92	6.01	3.69	3.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1.16	1.91	3.61	2.57	2.22
기타 제조업	1.43	0.96	1.52	1.04	0.83

자료: 다수의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생산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2005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이 12.28로 가장 높았고,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이 6.22로 2위 그리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5.33으로 3위를 하였다. 반면,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21.99로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의 지수가 4.48 그리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이 3.11로 2, 3위로 나타났다. 특히,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은 2005년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가 2011년에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Ⅲ. 한국 중소기업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과 GVC 참여 촉진 전략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하는데 있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국내 경쟁력과 해외 경쟁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도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의 조합으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정부가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분석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내에서 GVC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의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해외에서 GVC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법 또한 해외에서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표 3>은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국내 부가

〈표 7〉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현시비교우위 분석

산업	2005		2008		2009		2010		2011	
	부가가치 RCA	OFDI RCA	부가가치 RCA	OFDI RCA	부가가치 RCA	OFDI RCA	부가가치 RCA	OFDI RCA	부가가치 RCA	OFDI RCA
식료품, 음료, 담배	0.33	0.62	0.32	0.48	0.36	0.70	0.38	0.53	0.40	0.41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0.72	12.28	0.62	17.88	0.61	26.21	0.61	26.19	0.63	21.99
목재 및 나무 제품	0.04	0.74	0.03	0.73	0.04	1.22	0.04	1.58	0.05	1.59
펄프, 종이, 출판, 인쇄	0.68	6.22	0.76	1.26	0.69	1.68	0.72	1.10	0.73	1.57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9	0.29	0.09	2.13	0.13	3.24	0.20	1.35	0.22	1.06
화학물 및 화학제품	1.42	0.78	1.49	0.75	1.49	1.19	1.35	0.85	1.03	0.6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13	3.31	1.10	3.97	1.22	5.97	1.30	4.01	1.22	3.11
비금속광물 제품	0.49	4.16	0.40	3.18	0.32	5.34	0.37	3.62	0.38	2.92
제1차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0.89	1.92	0.91	2.11	1.20	4.00	1.10	2.03	1.20	1.69
기타 기계 및 장비	1.03	2.54	1.17	2.34	1.20	3.61	1.26	2.68	1.32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0.93	5.33	1.38	5.23	1.39	8.61	1.35	5.85	1.61	4.4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77	3.44	0.85	3.92	0.98	6.01	0.89	3.69	1.00	3.07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1.02	1.16	1.06	1.91	0.95	3.61	1.09	2.57	1.20	2.22
기타 제조업	0.45	1.43	0.35	0.96	0.32	1.52	0.12	1.04	0.12	0.83

자료: OECD &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청).

가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산출하여, 산업별 국내 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표 6>은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을 기준으로 산업별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산출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해외 생산 경쟁력 지표로 설정하였다.

<표 7>은 <표 3>과 <표 6>에서 산출된 2개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들을 조합한 표이다. 부가가치 생산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최하가 2005년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이 0.09이고 최고가 2011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이 1.61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현시비교우위 지수의 경우 최하가 2011년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이 0.41 그리고 최고는 2009년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26.21이다.

<그림 5>은 <표 7>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를 10 규모로 환산하여 조합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5>의 가로축은 국내 부가가치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를 나타낸다. <그림 5>의 하단 그래프에서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1.00(RCA=1)인 위치는 가로축은 6.21이고 세로축은 0.38이며, 두 RCA=1인 선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1에서 4사분면으로 구분된다. 3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낮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도 낮은,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모두 저조한 산업을 의미하며, 2005년 기준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이 이에 속했고, 2011년 기준으로는 단지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만이 3사분면에 위치했다.

이에 속한 산업들의 속성을 볼 때, 대부분의 산업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지하자원 부재와 기술력 약세에 따른 경쟁 열위 산업이다. 즉 지역특유의 우위도 열악하고 기업특유의 우위도 낮고, 해외 자회사 통합 운영에 따른 내부화특유의 우위도 없는 산업들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3사분면에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 능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산업들이다.

2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낮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가 높은, 즉 국내 생산 경쟁력은 없지만 해외 생산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 펄프, 종이, 출판, 인쇄 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산업 그리고 비금속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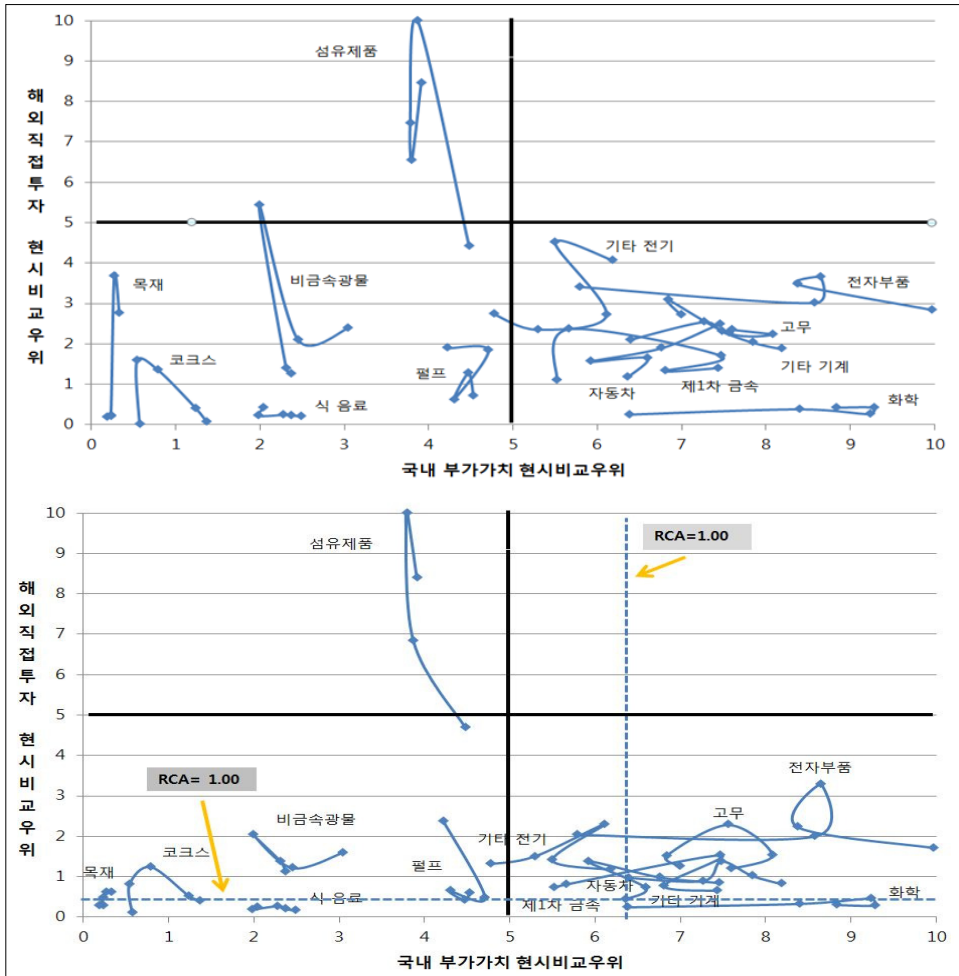
물 제품 산업이 이에 속했다. 이 산업은 3사분면에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이 없던 기업들이, 내부와 외부의 경제 주체들에 의해 기업특유의 우위(ownership specific advantage) 즉 생산 및 기술 개발 능력을 향상시켰고, 해외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내부화특유의 우위(internalization specific advantage)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킨 산업들이다. 예를 들어, 목재 및 나무 제품 산업은 2005년에는 3사분면에 위치하였다가 2008년부터 2사분면으로 이동하였다. 즉, 신흥국들의 개방 및 발전과 같은 글로벌화에 따라 이러한 산업에서 한국이 생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계속 상실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지역특유의 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 즉 저가 노동력, 지하자원 및 지정학적 위치 등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동시킨 산업들이다.

특히,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은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외 생산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적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자금 또는 경영 능력과 연계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4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높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가 낮은, 즉 국내 생산 경쟁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생산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다. 2005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만이 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은 한국이 생산지로서의 지역 특유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동할 만큼의 내부화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다. 즉, GVC가 더욱 확장되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의 1사분면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 현시비교우위가 높고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도 높은, 즉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산업을 가리키며,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이동해야 위치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기타 운송장비 산업은 2005년과 2011년 기준 모든 연도에 1사분면 위치한 산업들이었고, 제1차 금속산업/금속가공제품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산업 그리고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산업은 2005년 기준 2사분면에서 2011년 기준 1사분면으로 이동한 산업들이다.

〈그림 5〉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별 글로벌 경쟁력 분포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한국 제조업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약 30% 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서의 경쟁력이 없어 〈그림 5〉의 3과 4사분면에 많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시비교우위 지수로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서의 경쟁력을 측정 비교한 결과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들이 1과 2사분면에 위치한 즉, 해외직접투자에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대기업들에 비해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산업에 분산된 결과로 판단된다.

IV.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 촉진 전략 및 정부 정책

한국 중소기업들의 GVC 진입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중소기업들의 생산력 향상과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GVC에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 축적을 기반으로 GVC 내부 또는 다른 GVC에서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으로의 향상(upgrading)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GVC의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들을 국내에 유치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 개선과 혁신 능력의 부족, 적절한 금융 및 인적자본의 부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능력 부족, 대규모 계약 실행 능력 부족 등과 같은 중소기업들의 태생적인 핸디캡은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의 GVC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선 안정된 거시경제 정책과 재무, 노동 교육 등과 같이 관련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융합되어 보다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호의적인 경영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다(UNCTAD, 2007). 국내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전략 및 정부의 정책을 <그림 5>에서 보여준 국내 중소기업들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결과와 APEC (2014)에서 제시한 다국적 선도 기업이 중소기업을 공급업체로 결정하는 선택 기준인 외재적 강점(Hard Strengths)와 내재적 강점(Soft Strengths)과 UNCTAD (2006), OECD (2007)과 UNCTAD (2013)이 제시하는 정부 정책적 시사점을 연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외재적 강점 중에 하나인 제품 속성(Product Attributes)인 제품 품질, 제품 가격 그리고 제품 배송능력은 중소기업들의 독립적인 결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무간섭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approach)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 박람회, 콘퍼런스, 포럼과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전시회 등은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계약 또는 가능한 외국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GVC 참여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고취시킨다고 하였다(OECD, 2007).

기업 속성(Company Attributes)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5〉의 2사분면에 대표적인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비교 우위가 없고, 해외직접투자에서는 기타 산업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의 보편적인 GVC 지배구조로 볼 때, 구매자 구동상품의 가치사슬 또는 수요자주도형 글로벌 가치사슬로 생산 단가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에 동남아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이동하였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해 해외직접투자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정(process) 또는 제품 향상(product upgrading)을 통해 기존의 GVC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둘째는 기능(function) 또는 사슬(chain upgrading)을 통해 동일한 GVC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활동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사슬로 이동하는 전략이 있다. 셋째로는 GVC의 참여기업 또는 공급업체에서 선도 또는 중핵기업으로 자신의 새로운 GVC를 구축하는 것이다.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에서 소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주문자위탁생산자(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로 GVC에 참여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향상 전략(upgrading strategy)을 실행하여 제조업자 개발 생산자(Original Design Manufacturer, ODM)로 발전하고, 또 다른 향상 전략을 통해 기업 자체 브랜드를 창설하면서 자체 상표생산자(Original Brand Manufacturer, OBM)로 GVC의 중핵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해외 시장에 관한 수요, 경쟁자, 협력업체, 유통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태생적인 약점인 재정과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FTA 및 지역경제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빠른 정보 교환을 위한 정부 당국과의 연계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의 3사분면에 위치한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생산 경쟁력의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모두 낮은 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 후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섬유제품, 의복, 모피, 가죽, 가방, 신발 산업들이 위치한 2사분면 또는 기타 산업들이 분포한 4사분면으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3사분면에서 2사분면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산업의 고유한 성격이 국내의 지역특유의 우위가 타 국가들에 비해 열악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국내에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지하자원의 부재, 임금의 현격한 격차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의 열위 등이 기술 개발로 인한 생산성 증대와 같은 기업특유의 우위로 상쇄되지 않을 경우, 생산기지를 상대적으로 지역특유의 우위가 높은 국가로 이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산업의 성격이 지역특유의 열위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지적재산권 등의 기업특유의 우위로 극복이 가능한 산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그림 5〉의 3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서, GVC를 주도하는 해외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내 대·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반적인 투자유치 환경 개선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전략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5〉에 3사분면의 식료품, 음료, 담배 산업을 전략적 투자유치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존의 산업에 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외투기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의 국내 고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증액 투자할 때 또는 외국 다국적기업에 한국 중소기업과 연계할 때 인센티브를 가중해 주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 된다.

〈그림 5〉의 4사분면에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4사분면 산업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부가가치 생산에서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없다. 즉, 국내에서의 생산 경쟁력은 있지만, 규모가 크고 경쟁이 더욱

심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향후에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향상시켜, GVC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고부가가치 생산 활동은 국내에 유치하고, 국내의 지역특유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저부가가치 생산 활동들을 상대적으로 지역특유의 우위가 존재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대기업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할 때 동반 진출하여 상생하는 관계로 해외 생산 경쟁력도 높여 국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다. 정부는 국내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을 위한 전략적 제휴에 재정적 지원과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로의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는 해외 다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통한 발전전략이다. <그림 5>의 4사분면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세계 부가가치 생산 대비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즉, 이러한 산업들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업특유의 또는 지역특유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다국적기업들과 생산뿐만 아니라 R&D, 유통 등 GVC 전 생산 활동에서 폭 넓은 제휴를 통해 해외 다국적기업 주도의 GVC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생산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GVC에서 참여와 향상(upgrading)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간의 협업의 개념이 단순한 R&D 협업과 같이 제한된 협업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생산 활동에 연계된 협업으로 확장되어야 효율성 및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 및 인적 자원의 부족, 기술력 부족, 그리고 해외 경험 부족과 같은 중소기업의 태생적인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업생태계에 따라 정부의 정책 역시 변화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이 다국적기업들 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를 통해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새로운 관점의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의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GVC 중심의 산업 발전 정책이란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산업 정책에서 GVC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경쟁력은 새로운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능력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GVC 내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이동 또는 향상(upgrading)을 통해서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UNCTAD, 2013).

GVC 중심의 산업 발전정책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GVC의 구성원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중간재의 수입이 자유롭고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은 정책이 필수적이다. 또한, FTA와 그 밖의 지역 경제통합은 단순한 시장 확장의 개념에서 GVC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지역적 생산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관련 정책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국제화의 기본적인 개념이 외향성 국제화로만 인식되어져 왔던 편협한 정책에서 외향성과 내향성 국제화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폭 넓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해외 선진기업들로부터 기술과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 받고, 이렇게 전수 받은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우리 기업들의 고유한 자원과 능력(resources and capabilities)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창출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우리보다 낮은 경제 국가들로 진출하여 발휘되었고, 이로부터 창출된 경제적 이익은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본으로 사용되었다. 즉,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경쟁력이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생태계는 최근 급부상하는 신흥국 글로벌기업들의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전략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순차적으로 단계를 빠르게 진행하는 도약전략(Leapfrogging Strategy) 이라고 한다면, 신흥국 글로벌기업들의 전략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도움을 발판으로, 시장 확보를 위한 저개발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동시에 실행하는 가속화된 이중적인 도약판전략(Springboard Strategy) 이라고 할 수 있다(Lou and Tung, 2007).

즉,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에서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생태계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에 비중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경영환경을 의미하며, 내향형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외향형 국제화 활동에 선행하며, 내향형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 여부가 외향형 국제화 활동의 발전 정도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미이며, 내향형과 외향형 국제화가 모두 중요하다는 결론이다(Welch and Luostarinen, 1993).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인센티브 또는 자국 내에 GVC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 유인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로 새롭게 정립된 국가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해외수요와 국내 GDP의 관계를 기준으로 과거 유인정책의 실효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국내 생산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산업별 경쟁력 변화, 산업별 GVC와 FDI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외기업의 국내기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국제화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의 GVC를 지배하는 정도의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연계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다.

넷째, 기업생태계(Business Ecosystem) 관점의 사회적 역량(Social Capital)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가치사슬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기업생태계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복잡한 기업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생태계는 산업 수준의 가치사슬이지만 단순한 수요/공급자의 기계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생태계의 성공 여부는 기업, 정부, 교육시스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얼마나 일치단결 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생태계는 문화에 의해 한층 강화된 가치사슬이다. 가치사슬은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생태계는 지속 가능성을 창출한다 (Thomas, 2008).

즉, 가치사슬은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창출되고 축적된 가치로 정의되는 반면, 기업생태계는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금전적인 장점으로 정의된다. 기업생태계의 성장은 비금전적인 장점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탁월한 상호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이란 무형의 역량을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자산이란 참여자들 간의 반복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자산은 설비, 시설, 기술과 같은 물리적 자산과 디자인, 경쟁력, 교육과 같은 인적 자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산은 기업생태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GVC 참여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려면 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사회적 역량 구축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희채, “한·중·일·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Global Strategy Report 15-001,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2015.
- 이준호,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과학기술정책, MAR-APR, 2007, pp. 50-63.
- 이준호·김종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소기업의 국제화과제,” 뉴브릿지연구 07-01,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이준호·최정일·이옥동,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사례 및 지원과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7), 2014, pp. 159-175.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http://stat2.smba.go.kr/report_re.jsp?src=012.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211.171.208.92/odisas.html>.
- Luo, Y. and R. Tung, “International Expansion of Emerging Market Enterprises: A Springboard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 2007, pp. 481-498.
-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The OECD Tokyo Action Statement for Enhancing the Role of SMEs in Global Value Chains,” OECD Global Conference in Tokyo, 2007.
-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2015_C2,

- Thomas, Cedric, "Introduction to the OW2 Consortium Business Ecosystems Strategy," Working Paper, 2008.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Global Value Chain for Building National Productive Capacities," GE.06-52617, 2006.
- _____,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Global Value Chains," GE.07-51582, 2007.
- _____, "Integrating Developing Countries'SMEs into Global Value Chains," 2010.
- _____,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Global Value Chains: Investment and Trade for Development, 2013.
- Welch, L. S., P. K. Luostarinen, "Inward-Outward Connections in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1(1), 1993, pp.46-58.

Strategies for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and Policy Implications

Zukweon Kim*

Abstract

One of the major changes in the current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s that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of just a few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 most of the global business activities. These GVCs are structurally subdivided and regionally dispersed as a result of these MNEs' new strategies, which are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nations and enterprise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growth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process of such globalization is further accelerated by the decreasing costs of coordinating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ctivities and simultaneously provides threats and opportunities not only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also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can secure financial stability, increase productivity and enter the global market by participating in GVCs of the MNEs. However, SMEs require higher levels of financial and managerial resources and face more global competition to successfully participate in GVCs. Due to the many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SMEs that come with participating in GVCs, appropriate government policies providing protect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SMEs in developing, emerging, as well as developed markets (OECD, 2007; UNCTAD,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Received: Dec. 30, 2016. Revised: Jan. 16, 2017. Accepted: Jan. 20, 2017.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Phone: +82-2-450-3636, e-mail: zkkim@konkuk.ac.kr

of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of Korean SMEs in GVCs through detailed analyses of the current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RCAs) of Korean SMEs. While previous studies on this topic exist,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in three main ways. (1) This is the first time trade in value added (TiVA) is used to analyze Korean SMEs' industrial competitiveness. (2) The methods of Korean SME participation in GVCs are classified by domestic and foreign production, of which competitiveness is measured by domestic value added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spectively.

Key Words: global value chain(GV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lobal competitiveness

JEL Classification: F19, F23